한국문화기술 통권 제21호 2016.8. pp.79~102.

해방 후(1945-1950)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북한아동문학의 전개양상과 창작방법

– 월남전 강소천 작품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Changing process of the North Korea children's literature and the way of creation dealing with the subject of eradication of illteracy after liberation (1945-1950)

: A Analytical Study on Kang SoCheon's Literature

신정아(명지전문대학 강사)

차례

1. 서론
2. 긍정의 문학에 숨은 수동의 어린이
1) 고상한 사상 뒤에 권고하는 화자
2) 주체적 화자와 수동적 어린이
3.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북한 아동문학의 재발견
1) '은밀한 반전' 속에 동심 찾기
2) 혁명을 위한 문학 ; 재미 혹은 의미
4. 논의 및 결과

1. 서론

해방 직후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 사회는 아직 사회주의체제가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이면서 주체적으로 소련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북한사회는 국민의 힘을 믿으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유능한 노동력을 창출하는 것과 대중들에게 '혁명적 인식'을 주입시키는 것을 우선목표로 하였다.[1] 북한 혁명의 "사상적 요소는 첫째로 예술 중에서 가장 총명한 문학에 반응"되었다. 특히 북한은 2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문학단체의 통합과 함께 당의 문

1) 찰스 암스트롱, 「북한문학의 형성 1945-1950」, 『현대북한연구』 제2권 제1호, 1999, 126-127쪽.

학으로 쇄신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시집『응향』에 수록된 시중의 태반이 조선 현실에 대한 회의적, 공상적, 퇴폐적, 현실 도피적, 심하게는 절망적인 경향을 가졌음을 지적”[2]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후 북한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결부하여 문학자 예술가에게 정치적 사상적 교양사업을 강화”[3]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북한 주민의 약 230만 명이 문맹인 상황에서 당 정책의 선전선동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4] 국민들을 북한의 건국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성인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글을 깨우치게 하는 일이 시급했다.[5] 그리하여 “문맹퇴치운동의 광범위한 전개”[6]는 초등학교의 교육으로 이어졌다. 1947년 여름의 새 과정안에는 조선어와 조선문학, 조선역사, 조선지리의 연구에 많은 비중이 돌려졌다고 되어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총 교수 시수 136시간 중 43시간(31.6%)이 ‘조선어’ 학습에 배정되었다.[7]

해방 후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와 아동문학에서 다뤄진 주제는 김일성 우상화, 사회주의 우월성, 애국심, 노동애호, 혁명의식 고취 등이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높은 자각성과 문명성을 주입하면서 실시한 광범한 교양사업과 문화건설사업의 결과”[8]이며, 따라서 문맹퇴치운동은 당면 과업을

---

2)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상임위원회,「시집『응향』에 관한「북조선문학예술동맹 중앙상임위원회의 결정서」,『문화전선』3, 문화전선사, 1947, 82쪽.

3) 결정서,「북조선문학예술동맹 제1차 확대상임위원회 결정서」,『문화전선』4, 문화전선사, 1947, 170-173쪽.

4) 김창호,「우리나라에서의 문맹퇴치운동의 역사적 승리」,『역사과학』제4호, 1979, 8쪽.

5) 북한은 우선 농촌에 있는 문맹을 일소할 목적으로 1946년 12월 1일부터 1947년 3월 31일까지(1단계) 4개월간을 기간으로 강력한 동기농촌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한다.〈「동기농촌문맹퇴치운동에 관한 건」(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13호),『사료집』5, 1987, 859-860쪽.〉 1947년 12월 초부터 1948년 3월 말까지(2단계) 4개월 간을 ‘동기문맹퇴치운동기간’으로 설정하여 남은 문맹자의 80% 이상을 이 기간에 없애며, 1949년 3월말까지(3단계) 북한 지역에서 문맹을 완전히 퇴치할 것을 결정했다.〈이일산,「문맹퇴치 및 성인재교육 사업의 당면과업」,『인민』1948년 12월호(『사료집』37, 2002, 326쪽)〉 실제 1949년 3월 말까지 공화국 북반부에서 문맹자들이 기본적으로 퇴치되었다고 선언하면서 공화국 인민들의 문화혁명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성과라고 자평한다.

6) 김일성,「북조선 민주선거의 총결과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의 길』, 평양 : 민주 조선출판사, 1947, 156쪽.

7) 조병만,『해방 후 10년 간의 공화국 인민 교육의 발전』, 교육도서출판사, 1955, 51-56쪽.

8) 안막,「조선 문학과 예술의 기본 임무」,『문화전선』창간호, 1946.7, 4쪽.

위한 중요한 사회교육 정책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방 후 북한에서 발표된 아동문학작품 중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북한에서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 중 주요한 작품만을 선별한『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후)[9]과 월남 전 강소천이 '문맹퇴치'를 주제로 발표한 작품을 기본 자료로 한다. 특히 1945년 해방직후부터 1950년 전쟁 전까지 창작된 동요와 동시, 아동소설과 동화들이 편찬되어 있는『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은 30% 이상의 작가가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작품을 다루고 있다.[10] 작품집에 거론된 정서촌, 박세영, 강승한, 황민 등은 북조선문예총 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며, 남시우, 박세영은 각각 ≪봄소식≫, ≪별나라≫ 등 아동문학잡지를 발간한 북한아동문학계 중심인물이기도 하다.[11] 이처

9)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후편), 현대조선문학선집57, 문학예술출판사, 2012.

10) 강훈, 강효순, 리원우, 신영길, 현덕, 송창일, 박세영, 정서촌, 강승한, 한덕수, 남시우, 허남기, 김조규, 마우룡, 리호남, 남응손, 리맥, 김우철, 김찬홍, 김순석, 윤복진, 윤동향, 유진오 등 23명의 작가 중에 강효순, 송창일, 박세영, 정서촌, 마우룡, 김찬홍, 윤복진, 윤동향 등 8명의 작가가 문맹퇴치 주제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11) 작가 정서촌(1923-2006)은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출생하여 보통학교 시절부터 동요, 동시들을 습작 발표하였다. 해방 후에는 북조선문예총 평안북도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직책에서 사업하면서 서정시들을 창작하고 동요집 ≪조선의 아기≫를 발표하였다. 남시우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생하여 일제시기 일본에 건너가 고학을 하다가 1945년부터 재일조선인운동에 참가하여 교육자로 활약하며 동요집 ≪봄소식≫을 발간했다.(남시우는 ≪봄소식≫에서 「여기가 바로 우리 고향입니다」(1949.4) 등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문맹퇴치를 독려하는 작품을 다수 남겼다.) 박세영(1902-1989)은 경기도 고양군에서 출생하여 카프맹원, 무산학교 교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아동문학작품들을 창작 발표하였다. 그는 카프의 아동문학부에서 신인들을 지도하던 때에는 ≪별나라≫ 잡지도 발간했으며, 해방 후 북조선문예총 서기장으로 활동했다. 강승한은 북조선문예총 황해도 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직책에 사업했다. 강효순은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출생하여 사립학교를 졸업한 후 자습으로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소학교 교원자격을 받았다. 해방 후 교원생활을 하다가 안악군인민위원회 교육과 시학으로 사업하여 문학수업을 하였다. 그는 아동소설가, 동화작가로서 조선아동문학사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작가이다. 황민은 강원도 원산지에서 출생하여 청진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였다. 해방 후 북조선문예총 함경북도 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직책에서 사업하면서 소설과 동화, 동요와 동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창작한 다방면에서 재능을 가진 작가였다. 현덕은 1911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남생이」가 1등으로 입선되어 문단에 등장하였다. 윤복진(1908-1991)은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생하여 한생을 아동 시 창작에 바친 재능 있는 동요시인이다. 유진오는 해방직후 진보적인 전위시인이다. 이상에서『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후)에 북한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럼 위의 선집은 해방 후부터 전쟁 전까지 여러 직책에서 사업하거나 잡지를 발간하는 등 아동문학 관련 주요 인물들의 작품이 선별된 작품집이다. 머리말에서 "아동문학사에 길이 남을 성과작들이 창작되었다"[12]고 평한 것은, 해방직후에 창작된 북한아동문학작품들과 발전정형에 대해 잘 알려주는 작품집임을 증명한다.

이것을 강소천 작품과 함께 언급하는 것은 그가 월남하기 전 1950년까지 북한에서 발표한 문맹퇴치 주제의 작품이 다른 아동문학가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화법 등 창작방법에 있어서 다소 이질적인 면모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강소천은 해방 전 일제강점기 한글말살정책이 시행중일 때에도 꿋꿋하게 『호박꽃초롱』(1941)을 출간한 바 있다. 이후 우리말과 글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데에 비교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겠다.

2. 긍정의 문학에 숨은 수동의 어린이

1) 고상한 사상 뒤에 권고하는 화자

해방 이후 북한의 문학가가 새로이 체득해야할 창작방법론으로 '고상한 리얼리즘(1947.3)'은 북한 문학의 전반적 경향을 규정하는 중요한 계기였다.[13] 문맹퇴치는 분명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고상한' 사상이며,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아동문학 작품 또한 고상한 사상을 중심에 두고

12) 이 책을 출판한 문학예술출판사는 머리말에서 "해방 후 아동문학에서는 새 조국건설과 민주개혁의 역사적인 사변과 어버이 수령님 품속에서 혁명의 새 시대로 자라는 어린이들의 행복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시인들은 민주개혁의 제반시책에 의하여 날로 변모되어가는 민주조국의 새로운 모습과 행복상을 전투적이면서도 생기발랄한 아동시의 특성에 맞게 노래한 것"은 물론 "독자들의 문화적 소양을 더욱 풍부히 하여줄 뿐만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보무당당한 발걸음에 활력을 더해주며 널리 읽히게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13)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123쪽.

‘리얼리즘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예술은 이제까지의 문화 혹은 예술의 일반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작가가 사회의 일면을 인식하는 것 혹은 역사적 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표출된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고상한’ 사상을 내세우면서 민중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작품이 다수 있다.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밤이 오면/ 가랑잎에 바람이 지나는 산길로/
반짝이는 별들을 세며/ 마을 끝 야학으로 다니는 순희야//
너와 같이 어린 동무들도/ 환갑이 지나 보이는 할머니도/ 글공부 하는구나//
내 사랑 어린 동생 순희야/ 오랜 세월 우리는 일제 놈들 때문에/
눈도 입도 봉해져있었거니/ 뼈저리고 심장이 아프던 그날/
생각만 하여도…/ 그 독소의 넋을/ 샅샅이 뽑아버리지 않고는…//
아아, 배워야 한다/ 배우고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알고 일하는 것이 건설자이기에/ 한자라도 더 배워야 한다//
지금 등불을 일으키고/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는/ 저 글소리 글소리 글소리/
새 조선의 억센 힘이 되고/ 세계에 웨치는 인민들의/ 우렁찬 아우성소리 되려니!
- 마우룡, 「야학」(1948. ≪초중1년국어≫)전문

위의 동시는 “실질적인 배움의 욕구를 고려하기보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14]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아아, 배워야 한다/ 배우고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알고 일하는 것이 건절자이기에/ 한 자라도 더 배워야 한다”에서 권고하는 화자가 등장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즉, 글을 깨우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해야 한다(must)’ 등 직설화법으로 작가의도를 드러내는데, 작품 속 순희는 온종일 밭을 매고 밤이 오면 글공부를 하는 주체로 우상화된다.

또한 3연의 시구는 화자의 감정을 날것으로 노출하는데, 한글 말살 정책이 시행된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던 억울함은 “독소의 넋”에, 암담했던 시기는 “뼈저리고 심장이 아프던 그 날”에 각각

14) 파울로 프리리히, 남경태 역, 『페다고지』, 그린비, 2009.

비유되고 있다. 여기서 독소의 넋(=해로운 정신)은 다름 아닌, 무지했던 기운이다. 시인은 그 무지했던 기운을 샅샅이 뽑아버리지 않는 행위가 곧 "나라의 문명을 뒤떨어지게 하는 국가적 죄인이자, 문화민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회적 죄인"[15]임을 역설하고 있다.

위의 시를 접한 어린이들은 "모국어를 익히는 것이 문화적으로 중요하다고 확신하며, 그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믿게 된다. "북한의 창작자들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미의 고상한 조선 사람의 전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그것을 형성하는데 선구적 역할"[16]을 놓아야만 했다. 그것은 진보적 리얼리즘의 표출로써, "국민에의 복무와 역사를 선도하는 긍정적 영웅을 강조"[17]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성인학교를 소재로 다룬 다음 시편들에서도 나타난다.

누가 먼저 오나요	어서 가요
우리 마을 성인학교 불만 켜며는 어느 누가 먼저 오나 자세히 봐요 책을 끼고 할머니가 먼저 오시지 다 늙도록 눈뜬 장님 분해서래요 우리 마을 성인학교 불끌 때까지 누가누가 나중 가나 똑똑히 봐요 외고 쓰던 할머니가 나중 가시지 글 모르고 헛살은게 분해서래요 -『박세영동시선집』(1948.5)전문	돌고개집할아버지 어서 가요 배나무집어머니도 어서 가요 까막눈을 틔워주는 성인학교에 오늘밤도 환하게 불이 밝아요 모르며는 수치야요 어서 가요 아는것은 힘이야요 어서 가요 한자두자 우리 글을 배워가며는 가슴에서 부쩍부쩍 힘이 솟지요 어서 오라 종소리 울리여와요 어서 오라 등불이 비치여와요 모두모두 가요 성인학교에 배우고 또 배우려 어서 가요 - 정서촌아동문학작품집 『발자국』(1947)전문

15) 「부지런히 글 배우며 부지런히 일하자」, 『로동신문』, 1946년 12월 13일.
16) 「민족문학과 민족 예술 건설의 고상한 수준을 위하여」, 『문화전선』, 문화전선사, 1947.8, 102쪽.
17) 박필현, 「조선문학동맹의 창작방법론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67호, 2014, 447쪽.

북한은 1948년이 되자 문맹이 거의 퇴치되었다고 판단하고, “한글학교를 폐지”했다. 대신 “잔존 문맹의 퇴치와 더불어 초보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1년 기간의 속성성인학교”[18]가 생겼다. 위 두 편의 시는 성인학교를 소재로 “김일성 장군이 창작자에게 강조하는 교훈적인 실천방법”[19]이 두드러진 작품들이다. 당시 북한 정부는 아동 작가들에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철저히 입각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일관된 사상예술적으로 특출한 작품들을 창작”[20]할 것을 가르쳤다.

위의 동시에 등장한 ‘할머니, 돌고개집 할아버지, 배나무집 어머니’는 바로 “국민경제발전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문제를 해결”[21]할 주체들이다. 「누가 먼저 오나요」는 어린 화자가 성인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글을 깨우쳐야 할 궁극적 목적을 제시한다. 특히 매연 반복적으로 활용된 “분해서래요”라는 직설적 시구는, 원통한 문맹민족의 감정을 앞세워 다소 권고성을 띤 형태로 어린이 독자에게 주입된다. 이것은 「어서 가요」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의 텍스트에서 주관성은 확고하게 성인 화자에게 있으며, “모르며는 수치야요” 혹은 “아는 것은 힘이야요”에서 “독자는 주로 어린 화자의 순수한 관점에 스며든 성인의 목소리와 성인의 가치”[22]를 듣게 된다. 두 작품 모두 대구적인 표현수법을 반복하고, 점층법을 활용해 작가의지를 표출한 작품이다.

한편, 『박세영시선집』에 실린 150여 시편 중 문맹퇴치와 관련된 작품 위주로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 후)에 수록된 것이 확인됐다. 이것은 아동문학잡지 ≪해바라기≫(1946)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해바라기≫에 수록된 일백 여명의 작가 중 앞서 언급한 박세영은 물론 윤복

18) 남일, 「교육부문」, 『인민』 제3권 제4호, 1948. 9.(국사편찬위원회, 『사료집』 제14권)

19) 오태호, 「해방기(1945-1950) 북한문학의 ‘고상한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과정 고찰, 『우리어문연구』 제46집, 우리어문학회, 2013, 337쪽.

20) 장현준, 「해방 후 아동문학의 찬란한 발전 노정」, 『해방 후 우리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74쪽.

21) 한설야, 「국가교육의 전망」, 『인민』, 1947.4, (『사료집』 제37권, 1992, 395쪽)

22) 마리아 니꼴라예바, 『어린이 문학에 나타난 힘과 목소리, 주체성』, 교문사, 2012, 140쪽.

진, 마우룡 등 강력한 화법을 구사하는 시인들 위주로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 후)에 선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바라기≫에 실린 150여 시편 중에 4편이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동시이며, 그 작품을 쓴 작가들이 모두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에 거론되었다. 이것은 북한 사회에서 목적의식이 강한 작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중요시한다는 증거가 된다. 이후 박세영, 마우룡, 윤복진은 같은 잡지[23]에서 각각 「한글학교 가자우요」, 「대지에 쓰는 어머니 노래」, 「학습터에서」 등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다.

2) 주체적 화자와 수동적 어린이

북한에서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이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 이념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전반적으로 전자의 경우를 따르고 있으나, 북한에서 창작된 강소천[24]의 작품은 이념의 개입 없이 순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다른 아동문학가의 작품과 차별화되므로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문맹퇴치'를 소재삼은 것으로 판단되는 소천의 작품 「둘이 둘이 마주 앉아」이다.

할머니는 안경 쓰고
나도 안경 쓰고

23) 조선아동문학문고26, 『해바라기』, 금성청년출판사, 1981

24) 강소천 역시 월남하기 전(1945-1950), 북한에서 아동문학가로 활발히 활동한 작가 중 일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아동문학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1950년 월남했기 때문이며, 북한에서 요구하는 문학체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도 있다. 그가 북한에서 발표한 작품은 많지 않다. 공식적으로 발굴된 작품이 동시 「자라는 소년」(아동문학, 1949.6), 「가을 들에서」(소년단, 1949.8), 「나두 나두 크면은」(1949.12), 「둘이 둘이 마주 앉아」(아동문학집, 1950), 「야금의 불꽃은」 총 다섯 편, 동화 「정희와 그림자」(1947.7)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집필했으나 원고를 잃어버려 남한에서 다시 썼다고 밝혀진 동화 「박 송아지」가 있다.

둘이 둘이 마주 앉아
책을 읽지요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
나는 수수깨이 안경
둘이 마주 앉아
책을 읽지요

할머니도 일학년생
나도 일학년생
둘이 둘이 마주앉아
책을 읽지요

- 「둘이 둘이 마주 앉아」(강소천, 1950)전문

위의 작품은 "동심 세계를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준 동시로,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25]이다. 할머니와 손자가 마주 앉아 책을 읽는 정다운 모습에 작가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작가의도와 상관없이 독자가 시대적 배경 안에서 충분히 그 이념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혹은 의도했더라도 "창작 주체가 작품 속에 시적 주체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 이념이나 감정을 진술하는 대신, 배역"[26]이 등장함으로써 "소위 순수한 아동 세계 자체에 머물기 녹록지 않던"[27] 북한 아동문학의 주인공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었다.

"어린이 독자들은 성인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사건에 대한 판단과 이해가 자유로워진다."[28] 위의 시는 수수깡 안경을 쓰고 책을 읽는 등 지극히 어린 화자의 목소리만 남아 어린이 독자에게 더욱 공감을 줄

25) 박덕규, 「아동문학의 영원한 샘」, 『강소천 평전』, 교학사, 2015, 244쪽.
26) 볼프강 카이저, 김윤섭 역, 『언어예술작품론』, 대방출판사, 1982, 296쪽.
27) 장형준, 같은 글, 279-282쪽.
28) 마리아 니꼴라예바, 같은 책, 138-185쪽.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아울러 수수깡 안경을 쓴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그리지만, 표면적인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작가의 태도에서 작품의 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윤동향의 「글 읽는 아이」(≪해바라기≫, 1946)에서도 1학년 돌이가 등장하는데, 소천 작품에 등장한 화자와는 차별화된 이미지다. "돌이는 1학년/ 글을 읽는다/ 그는 배운 국어를/ 잘도 읽는다// ≪다시 찾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밤깊도록 신나게/ 잘도 읽는다"는 다시 찾은 나라에서 밤 깊도록 신나게 글을 읽는 돌이의 모습을 북한 어린이가 본받아야할 롤 모델(role model)로 제시한다. 시인이 작품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돌이는 작가(시인) 의지에 따라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주체가 된다. 다음은 윤동향의 또 다른 작품 「글씨공부」이다.

> 아이들이 모여앉아/ 글씨공부 하지요/ 느티나무밑에서/ 글씨공부 하지요//
> 다박머리 까까머리/ 모두모두 친한 동무/ 이랴끼랴 쩟쩟/
> 소 몰고가는 아저씨 붙잡고//
> ≪아저씨 아저씨/ 가갸줄 한줄 써주세요≫/ ≪가갸줄 가갸줄?/ 오오냐 그래라≫//
> 아저씨는 빙그레/ 소고삐 발에 밟고/ 채찍으로 땅바닥에/ 커다랗게 써주지요//
> 아저씨도 처음으로/ 배운다는 우리 글/ 기뻐서 기뻐서/ 써주고 가지요
>
> -윤동향, 「글씨공부」(≪해바라기≫, 1946)전문

당시 북한은 전 국민이 학습자 또는 교사로 참여하는 대중 접근을 문맹퇴치의 유력한 방식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소 몰고 가는 아저씨가 "기뻐서 기뻐서 써주고 가는 우리 글"에서처럼 실제 문해자들은 해방된 기쁨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작품을 이데올로기의 번역물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의식을 지나치게 앞세우려는 경향이 있다. 이때 시적화자는 주체적인 어린이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수용하는 어린이가 주체"가 된다.

「글씨 공부」 또한 "해방의 기쁨 속에서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를 전달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키울 것을 계몽하고 있으나, 계몽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인식한 나머지 어른의 목소리만 남는 문제를 드러냈다."[29] 이것은 다음 두 편의 시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호박꽃 따서는/ 무얼 만드나/ 무얼 만드나
우리 애기 조고만/ 초롱 만들지/ 초롱 만들지
반디불을 잡아선/ 무엇에 쓰나/ 무엇에 쓰나
우리 애기 초롱에/ 촛불 켜주지/ 촛불 켜주지

-강소천, 「호박꽃초롱」(『호박꽃초롱』, 1941)

호박꽃 따서는/ 무얼 만드나/ 반디불을 잡아넣고/ 초롱불 켜지
초롱불 켜서는/ 어디에 쓰나/ 인민군대 아저씨들/ 길 밝혀주지
밤에도 미국놈들/ 쳐부수라고/ 전선으로 가는 길/ 밝히여주지

-정서촌, 「초롱불」(『발자국』, 1947)

위의 시편들은 문맹퇴치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단, 작품의 소재가 비슷한데, 호박꽃을 따서 초롱을 만들고 반딧불을 잡아 불을 켠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30] 두 작품에서 확연하게 다른 부분은 바로 마지막 연이다. 소천의 「호박꽃초롱」에서 초롱에 불을 켜는 이유가 "우리 애기 초롱에/ 촛불"을 켜주기 위해서인 반면, 「호박꽃」에서 초롱에 불을 켜는 이유는 "인민군대 아저씨들/ 길"을 밝혀주기 위함이다. 길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 놈들 쳐부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인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며, 직설화법을 활용한 사실주의적인 작품에서 독자를 설득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29) 김종헌, 『동심의 발견과 해방기 동시문학』, 청동거울, 2008, 242-244쪽.
30) 강소천이 정서촌보다 6년 앞선 시기에 작품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

3.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북한 아동문학의 재발견

1) '은밀한 반전' 속에 동심 찾기

문맹퇴치를 테마로 한 「박 송아지」는 소천이 8·15 해방 이후 "북한에서 집필했으나 원고를 잃어버려서 남한에서 다시 썼다"[31]고 밝혀진 작품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남하하기 전의 소산으로서, 해방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박 송아지」의 집필 시기를 두고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소천이 언급한 바를 근거로 북한에서 집필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32] 또한, 그의 동시집 『호박꽃초롱』(1941)에 실린 「엄마 소」는 「박 송아지」와 발상이 비슷한데, 이것은 그가 월남하기 전 「박 송아지」를 창작했을 가능성을 더해준다. 「엄마 소」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엄마 보구
「엄마」 「엄마」 그런다두만

우리집 어미소는 제가 아가 보구
「엄마아」 「엄마아」 그래요.

- 「엄마소」[33] 전문

위의 작품에서 어미소는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는 동물로 등장한다.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 어미소가 아기소한테 "엄마아" 하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음매애"라는 소의 울음소리가 "엄마아"로 들릴 수 있다는 발상에서 착안한 것이다. 동화 「박 송아지」에서도 송아지가 인간처럼 말을

31) 강소천, 『소년문학선』, 경진사, 1954, 233쪽.

32) 북한 발표작으로 추정된 것이 아닌, 집필한 시기라는 점이 문제시될 수 있겠다. 그러나 '북한의 문맹퇴치와 아동문학'을 다룬 연구에서 한번쯤 언급될만한 가치 있는 작품이라 판단했다.

33) 강소천, 『호박꽃초롱』, 박문서관, 1941, 38쪽.

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바로 송아지가 종이에 적힌 "음매애"라는 글자를 읽는 반전이 문맹퇴치 주제를 말해준다. 「엄마소」(1941년)가 해방 전에 발표된 작품이라고 봤을 때, 문맹퇴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해방 이후에 비슷한 소재를 활용해 「박 송아지」를 창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된 소천의 작품에서 드러난 발상 기법은 "현실이란 악착한 사태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를 모색하는 것이 아동문학의 본도"[34]라고 믿는 그의 창작태도를 대변한다. 즉, 현실에 나타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문학보다는 어린이 독자에게 우의적으로 다가가는 문학을 지향한다. 이렇듯 서정성 짙은 순수문학을 꿈꾸는 소천은 해방 직후 북조선문학예술동맹 아동문학위원[35]을 역임하면서도 북한의 아동문학 방향에 회의가 들었을 것이다. 그는 결국 해방 후 북한의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시류에 영합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남겨둔 채 월남한다.

"그래, 다섯 사람 다 글 볼 줄 아니?"
"저어, 우리 박송아지만은 모릅니다."
"그럼, 박송아지를 내일부터 야학에 보내라. 야학에서 글을 가르쳐 줄 테니……."
"박송아지를요? 박송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 송아지인데요."
"송아지야? 송아지에게 무슨 성이 다 있어? 고놈 참 맹랑한데."
동회에서 글 모르는 사람 조사 왔던 이는, 하도 어이가 없어 껄껄 웃고 돌아갔습니다.
(중략)
"박송아지 요즈음 야학에 다닌다지?"
"인젠 '바둑아, 바둑아' 다 배웠다지?"
"편지도 좍좍 읽는대……."
"한문자도 아나?"

---

34) 최태호, 「소천의 문학세계」, 『꾸러기행진곡』, 강소천아동문학전집5, 교학사, 306-307쪽.
35) 『문화전선』, 평양 :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7.12.(당시 강소천, 노양근 등 12명의 아동문학가가 포함되어 있다.)

"알 테지……."

"그럼, 신문도 막 읽겠네."

하고 모두들 웃고 떠들어 댔습니다.

그 날 밤, 창덕이는 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짐승에게는 글을 가르쳐 줄 수 없을까? 우리 박송아지도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시 북한의 아동문학은 "동심주의 관념에 맞서면서 아동의 현실을 강조하려다가 그만 공상과 상상까지 추방시키는 오류"[36]가 적지 않았다. 북한에서 교원을 했던 소천이 월남한 이후, 구체적인 어린이의 생활에 더욱 집중한 것은 바로 동심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특히 「박 송아지」는 문맹퇴치 테마를 "은밀한 반전 속에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37]할 수 있는 작품이며, "박 송아지가 '음매'하면서 글을 읽는 장면은 소천의 남다른 재치"를 보여준다. 또한, "아이들의 장난스런 소동 속에 감쪽같이 녹아들게 한 수작"[38]이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위의 작품에서 주인공 창덕이는 "다섯 사람 다 글 볼 줄 아니?"라는 조사원의 물음에 박송아지만은 모른다는 맹랑한 대답을 한다. 그리고 '박 송아지도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한다. 이것은 "협소한 범위로 말미암아 작품의 운명을 제한"[39]하는 오류에서 탈피하면서, 어린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글을 읽는 송아지 등장으로 단순히 상황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의 작품에는 두 개의 시점이 존재한다. 바로 창덕이처럼 상황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순진한 화자의 시점과 다른 하나는 상황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화자의 시점이다. 소천은 문맹퇴치의 필요성을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나 모르는 척 사건

36)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81쪽.

37) 박덕규, 같은 책, 149-150쪽.

38) 원종찬, 같은 책, 20쪽.

39) P.S 브리호드쩨프, 이규환 역, 「사회주의 리얼리즘 강의(4)」, 『러시아소비에트문학』 제4권, 한국러시아문학회, 1993, 273쪽.

을 진술함으로써, 작품에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고 해학성을 띠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천은 북한의 문단이 제시한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은밀하게 문장구조를 조정하고, 다양한 중요도를 지닌 서사적 요소들을 전경화하거나 후경화"[40]해서 그만의 창작방향을 설계하고자 했다.

> 영구가 무얼 불쑥 내미는 것을 본 박송아지는 먹을 것이나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종이였습니다. 박송아지는 속았다는 듯이 언제나 하는 버릇으로,
> "음매애……."
> 하고 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 "자, 읽었다. 인젠 글 쓴 종이를 가지고 와."
> 창덕이는 무슨 큰일이나 생긴 듯이 떠들었습니다.
> 제 생각대로 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 아이들은 영구의 종이쪽지에 벌 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 "정말, '음매애'라고 썼구나."
> "참, 잘 읽는데!"
> "됐어, 야학에 다니더니……."
> 아이들은 정말 재미가 있다는 듯이 깔깔깔 웃어댔습니다.
> (중략)
> 누가 글을 읽다 모르든지 틀리게 읽으면,
> "우리 박송아지만도 못하다니……."
> 하곤 한바탕 웃어대곤 합니다.

주인공 창덕이와 영구를 비롯한 아이들이 박 송아지에게 '음매애'라는 글귀를 읽힌 것은,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모든 것을 놀이로 받아들이는 동심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둘이 둘이 마주 앉아」에서 수수깡 놀이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하여 문맹퇴치를 소재로 활용하면서도, 그 의도가 작품에 표출되지 않는다. "오늘의 작가는 결코 소재 속에 파묻혀 있는 공상가가 아니"[41]라는 발언에 대응하면서, 문학성을 보여준 작품

40) S. 채드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고려원, 1991, 229-230쪽.

이기도 하다. “틀린 것이 나올 때마다 맞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상에서 벗어나는 게 나올 때마다 정상에 대한 개념이 강화”[42]되는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2) 혁명을 위한 문학 ; 재미 혹은 의미

초기 북한 문학의 형성 과정에서 1947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앞서 언급한바 ‘고상한 리얼리즘’이라는 창작방법론을 주창하게 되는데, 특히 긍정적 주인공론에 기초한 아동문학이 목적하는 바는 의식의 개혁이며, 오늘날까지 북한의 전형적인 창작 방법이다. 이것은 강효순의 「승리」[43]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 ≪야, 그런데 소년단휘장은 왜 거꾸로 달았느냐 말이야, 엉?≫
> ≪내가 달았다던? 우리 할머니가 달았지. 씨— 알지도 못하면서…≫
> ≪너의 할머니는 글도 모르냐? 눈뜬 소경이로구나!≫ (…중략…)
> 체조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갈 때에 박선생은 철수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 ≪철수는 성인학교학생을 동원시키는데서도 모범이였는데 할머니를 놓쳤댔구만요. 우선 자기 집에 계시는 문맹자부터 퇴치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 철수는 지금까지 할머니에게 글을 가르쳐드린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인학교에 나가야 한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관계로 면제되었으니까 할머니는 글을 몰라도 무방한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위의 작품은 주인공 철수가 소년단조직생활을 통하여 새조선의 생활기풍을 배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머니께 글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철수는 “고상하게 변혁, 발전하고 있는 사상과 의지감정”[44]

41) 한효, 「진보적 리얼리즘의 길」, 『신문학』 창간호, 1946.4, 138쪽.
42) 코르네이 추콥스키, 『두 살에서 다섯 살까지』, 양철북, 2006, 165~167쪽.
43) 강효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1948. 7. 10(『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후) 재수록)
44) 한식, 「조선문학의 발전을 위하여-창작방법에 대한 재문제」, 『문학예술』 창간호, 1948. 4, 46쪽.

으로 창조된 인물이며, 미래에 "중대한 임무와 그 수행에 대처할 힘을 배양"[45]할 긍정적 주인공의 형상이기도 하다. 철수는 소년단휘장을 거꾸로 달고 학교에 가서 망신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다음에서 글 모르는 것이 망신이라 생각하고 박 선생이 오면 피해야겠다는 할머니, 철수의 성인학교 제안 등은 새로운 사상으로 교양코자하는 작가의지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할머니와 철수의 대화 그리고 박 선생의 발언은 모두 '문맹퇴치운동'이라는 주제를 향한 직설적 언급이 되고 있다.

≪망신할게 뭐냐? 글모르는 할머니가 달았다구 대답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기야 했지요.≫

≪잡녀석 같으니, 정말 그렇게 말했냐? 그럼 네 망신이 아니라 내 망신이였구나. 박선생이 가정방문 오시면 나는 피해야겠다.≫

할머니는 뒤통수를 긁적긁적 긁는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수가 있어요.≫

≪좋은 수라니?≫

≪할머니는 오늘부터 성인학교에 가세요. 예쁜이 할머니도 성인학교에서는 면제되었지만 자진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글을 배우지 않았다가는 앞으로 더 큰 망신을 할거야요.≫

≪잡녀석같으니, 그보다 더 큰 망신을 하면 고소하겠니?≫

≪고소할것은 없지만 글을 몰라서 소년단휘장을 거꾸로 단건 창피한 일이거던요.≫

≪그러니 다 늙은게 이제 글을 어떻게 배우겠니?≫

철수는 할머니를 설득해 문맹을 퇴치하는 성인학교사업에 앞장서며, 그 과정에 자기 분단이 승리의 깃발을 수여받는데 기여하게 된다. 위의 작품은 단순하고 솔직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좋은 일 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성격을 나이와 심리에 어울리게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무사상적경향에 타격을 주고 현실주제의 긍정과 계급교양의 기

45) 정태병, 「아동문화의 새로운 전망」, 『아동문화』 제1집, 동지사아동원.

능”[46]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극히 교훈적인 아동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잡녀석”이라는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이 글이 흥미롭게 읽히는 요소 중 하나다. 할머니의 개성적 면모가 작품에 재미성을 부여하면서도, 작가가 목적한바 외에 교육적 요소는 크게 집중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 해방 후 북한 아동문학의 과업은 “국민을 새 인간으로 교양하여 어떠한 난관이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47]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작품 제목이 「승리」인 것도 같은 취지에서 이해되어진다. 작품은 지도원 선생님이 할머니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아이들이 박수를 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 ≪나는 소년단휘장을 거꾸로 달았던 박철수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글을 배우지 못할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을 배워가지고 편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김일성** 장군님의 덕택이지요. 그리고 소년단원들은 내가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었습니다. 소년단명절을 맞으면서 너무 기쁘기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문맹 여성들은 스스로 남편이나 다른 남성들 앞에서 글을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으며, 남성들 또한 여성들이 글을 배우러 다니면 가정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글을 배우지 못하게 막는 일이 발생했다.[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할머니의 문맹퇴치가 해결된, 완전한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다. 1947년 8월 4일 김일성은 강원도 평강군 서면 옥동리에 사는 여성 농민 리계산을 접견하는 가운데 그녀가 문맹인 것을 알고, 이 여성에게 한글학교에 들어가 문맹을 퇴치하고 석 달 후에 그 결과를 자필편지로 써 보낼 것[49]을 제안한바 있다. 작품 결말에서 이와 같

46)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후편), 같은 책, 10-12쪽.
47) 리원우, 『아동문학 창작의 길』, 국립출판사, 1956, 3쪽.
48) 전혜정, 『문학 퇴치의 경험』,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46쪽.

은 사회적 맥락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동화뿐만 아니라 동시에서도 문맹퇴치라는 목적한 바를 성취한 기쁨이 드러난 작품이 있는데, 바로 송창일의 「새마을」[50]이다. “글 모르던 사람들이 매일 밤/ 야학에 나가 열심히 배워 지금은/ 눈뜬 소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을 줄줄 읽을 수 있으며/ 나라 일을 곧 이야기 하는/ 훌륭한 농민들이 되었습니다.”라는 화자의 말에서 문맹이 퇴치된 성취감과 문맹자들을 독려하는 화자의 마음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 머리말에서 “서술체 형식과 단조로운 의인화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낡은 창작수법을 극복하고 동화문학의 인식 교양적 기능을 보장한다”고 평한 것은 북한사회가 추구하는 아동문학의 방향을 말해준다. 북한의 아동 세대에게 “지배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거기에 내재된 가치를 홍보”[51]하기 위한 작품구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어린 세대들이 가꾸어갈 북한의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4. 논의 및 결과

초기 북한 문학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형태였으며, 이후 발기된 ‘고상한 리얼리즘’은 당시 북한의 전형적인 창작 방법으로 문학의 전반적 경향을 규정하였다. 이 시기 문맹퇴치운동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고상한’ 사상이며,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아동문학 작품 또한 ‘리얼리즘의 우월성’을 중심에 두었다. 본고에서는 해방 후 북한에서 발표된 아동문학작품 중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이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작품이

49) 김일, 『붉은 해발 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 : 1945. 8-1950. 6』,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50)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후편), 같은 책, 88-89쪽.
51) 마리아 니꼴라예바, 같은 책, 226쪽.

고, 다른 하나는 이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 이념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전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고상한 사상을 내세우면서 민중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작품이 다수인데, 이와 같이 작품을 이데올로기의 번역물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의식을 지나치게 앞세우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해방 후 주요작가가 거론된『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은 시인이 작품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때의 시적 화자는 창작 주체가 작품 속에 시적 주체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 이념이나 감정을 진술하는 성인화자 혹은 시인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수용하는 어린 화자이다. 그들은 긍정적 주인공의 형상이면서 작가의지에 따라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주체가 된다. 시인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며, 어린 화자가 성인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글을 깨우쳐야 할 궁극적 목적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후자의 경우 해방 후 북한에서 발표된 강소천 작품을 말할 수 있다. 그는 문맹퇴치를 소재로 활용하면서도 작가의도 내지는 사상적 감정을 날것으로 노출하지 않으며, 이념의 개입 없이 순수한 작품으로 읽히기도 한다. 즉, 소천의 작품에 드러난 발상기법은 현실에 나타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문학보다는 어린이 독자에게 우의적으로 다가가는 문학을 지향한다. 이것은 화자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결과다. 표면적인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작가의 태도가 바로 그것인데, 그의 작품에는 상황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순진한 화자와 상황의 전모를 이해하고 있는 화자가 존재한다. 소천은 문맹퇴치의 필요성을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나 모르는 척 순진을 가장하고 이야기를 진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숨은 진실을 파악하고 그 시점의 차이에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다시 말해 소천의 작품이 해학과 웃음을 제공하면서 문학성을 띠는 것은 화자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천의 작품은 지극히 순수한 어린 화자의 목소리가 어린이 독자에게 공감을 주면서, 어린 아이일수록 모든 것을 놀이로 받아들이는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후편)』, 현대조선문학선집57, 문학예술출판사, 2012.
강소천, 「둘이 둘이 마주 앉아」, 『아동문학집』 제1집, 평양:문화전선사. 1950.
강소천, 『호박꽃초롱』, 박문서관, 1941.
강소천, 『꿈을 찍는 사진관』, 교학사, 2006.
강소천, 『소년문학선』, 경진사, 1954.
강효순,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1948.
박세영, 『박세영동시선집』, 1948.
정서촌, 『발자국』, 정서촌아동문학작품집, 1947.
『해바라기』, 조선아동문학문고, 금성청년출판사, 1981.

2. 단행본

김일 외,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 : 1945.8~1950.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일성 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의 길』, 평양 : 민주조선출판사, 1947.
남원진, 『양귀비가 마약 중독의 원료이듯(남북문학연구)』, 경진, 2012.
장형준, 『해방 후 아동문학의 찬연한 발전 노정, 해방 후 우리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조병만,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 교육의 발전』, 교육도서출판사, 1955.
허정숙, 『민주 건국의 나날에』,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김종헌, 『동심의 발견과 해방기 동시문학』, 청동거울, 2008.
리원우, 『아동문학창작의 길』, 국립출판사, 1956.
박덕규, 『아동문학의 영원한 샘, 강소천 평전』, 교학사, 2015.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전혜정, 『문맹퇴치의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최태호, 「소천의 문학세계」, 『꾸러기행진곡』, 강소천아동문학전집5, 교학사, 2006.
바디・비른봄, 최장집・정해구 역, 『국가형성론의 역사』, 열음사, 1989.
코르네이 추콥스키, 홍한별 역, 『두 살에서 다섯 살까지』, 양철북, 2006.
파울로 프리리히, 남경태 역, 『페다고지』, 그린비, 2009.
루나찰스끼, 김휴 역, 『사회주의 리얼리즘』, 일월서각, 1987.
마리아 니꼴라예바, 고선주 외 역, 『어린이 문학에 나타난 힘과 목소리, 주체성』, 교문사, 2012.

S. 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고려원, 1991.
S. 캐슬 외, 이진석 역, 『사회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푸른나무, 1990.
볼프강 카이저, 김윤섭 역, 『언어예술작품론』, 대방출판사, 1982.
안나 루이스 스트롱, 이종석 역, 『북한, 1947년 여름, 김남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2006(원본발간일 1989).

3. 논문 및 평설류

김창호, 「우리나라에서의 문맹퇴치운동의 역사적 승리」, ≪역사과학≫ 4호, 1979.
남일, 「교육부문」, ≪인민≫ 제3권 제4호, 1948년 9월호.(국사편찬위원회, 『사료집』 제14권), 1948.
박세영, 「'아동문학' 창간 당시의 회상」, ≪아동문학≫ 7월호, 1957.
박필현, 「조선문학동맹의 창작방법론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67호, 2014.
안막, 「조선문학과 예술의 기본임무」, ≪문화전선≫ 창간호, 1946.7.
오태호, 「해방기(1945-1950) 북한 문학의 '고상한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 과정 고찰」, 『우리어문연구』 제46집, 우리어문학회, 2013.5.30.
원종찬, 「강소천 소고」,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3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7.
이일산, 「문맹퇴치 및 성인재교육 사업의 당면과업, 인민」, 1948년 12월호(『사료집』 제37권, 2002).
정태병, 「아동문화의 새로운 전망」, 아동문화 1집, 동지사아동원, 1948.
한설야, 「국가교육의 전망」, ≪인민≫, 1947년 4월호(『사료집』제13권, 1992).
한식, 「조선문학의 발전을 위하여-창작방법에 대한 제 문제」, ≪문학예술≫ 창간호, 1948년 4월호.
한효, 「진보적 리얼리즘에의 길」, ≪신문학≫ 창간호, 1946년 4월호.
P.S브리호드쩨프, 이규환 역, 사회주의 리얼리즘 강의(4), 러시아소비에트문학4권, 한국러시아문학회, 1993.
찰스 암스트롱, 「북한 문화의 형성 1945-1950」, 『현대북한연구』 제2권 제1호, 1999.

4. 기타북한자료

결정서, 북조선문학예술동맹 제1차 확대상임위원회 결정서, 문화전선4, 문화전선사, 1947.
동기농촌문맹퇴치운동에 관한 건(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13호), 사료집 제5권, 1987.
「민족문학과 민족 예술 건설의 고상한 수준을 위하여」, ≪문화전선≫, 문화전선사, 1947.8.
≪문화전선≫, 평양 :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7.12.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시집 『응향』에 관한 「북조선문학예술동맹 중앙상임위원회의 결정서, ≪문화전선≫3, 문화전선사, 1947.
「부지런히 글 배우며 부지런히 일하자」, 로동신문, 1946년 12월 13일.

Abstract

Changing process of the North Korea children's literature and the way of creation dealing with the subject of eradication of illteracy after liberation (1945-1950)

: A Analytical Study on Kang SoCheon's Literature

Shin Jung A

The early North Korean literature was social realism and then 'noble realism' after it defined comprehensive trend of literature with North Korean's own creative methods at that time. The crusade against illiteracy at that time was truly a 'noble idea' to enlighten the people, and children's literature focusing on the crusade against illiteracy also prioritized 'realism'. However, to children's literature consistent with political purpose, the party's intentional intervention made side-effect jut to leave subject to accept right given by author. Even though it showed positive characters, they are passive. Young speakers suggested the party's ultimate goal through adults' voices, and it was inputted to younger generations in somewhat mandatory ways.

The view to a work as a translation of an ideology is likely to give priority to social sense too much. But Socheon's works written in North Korea are distinctive with these works. The party's idealogical intention or intervention were not directly revealed and read as pure one without intervention of the ideology. With very young speaker's voice, it provided empathy to children readers. He did not like children's literature as a tool to accomplish the party's goal and searched for 'objective

childlikeness', In particular, "Two sit facing each other' and 'Park calf' reflected childlike characteristic that young children accept everything as play. Therefore, he used the crusade against illiteracy as objects, the intention did not show in his works. He did not write the work for political project but those expressing pure joy of the liberation to young generation.

주제어: 북한(North Korea), 문맹퇴치문학(a literature to abolish illiteracy), 수동적 어린이(a passive child), 강소천(Kangsochun), 화자의 이중성(speaker's position)

논문 접수일 2016. 07. 10. | 논문 심사일 2016. 07.18 | 게재 확정일 2016. 08. 10.